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가톨릭 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가톨릭 성가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가톨릭 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제 1독서 | 예레 20,10-13

<그러나 주님께서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화답송 | 시편 69(68), 8-10.14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좌)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우)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 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좌)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 2독서 | 로마서 5,12-15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0,26-33

<오늘의 복음> 마태오 10,26-3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26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28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고귀한 인류의 품격 (Fr.방종우 야고보)

얼마 전 우연히 김애란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작가님은 대답했습니다. "인간한테 있고 AI에게 없는 것은 '망설임'이에요." 빠르고 즉각적인 것을 바라는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이 문장만 보면, 망설임이 마치 인간의 결함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의 요지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이나 아픔 앞에서 인간은 바로 답을 내놓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망설임의 시간을 갖는데,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이 투박한 침묵과 주저함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교황님이 발표하신 AI에 관한 회칙, 고귀한 인류와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인류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 예측 불가능성을 없애는 것에서 삶의 충만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칙은 이를 하나의 유혹이라고 선언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성장은 오히려 하나의 빈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112-113항).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효율성과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으며, 우정은 생산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손익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며, 희망은 성공 가능성이 보장될 때만 품는 감정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 이웃의 고통 앞에서 함께 침묵하는 순간, 아픈 이를 돌보며 곁을 지키는 인내는 모두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초월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고귀한 인간다움이란 결함을 제거하여 완벽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채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저를 성장시킨 것은 성공보다 실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했던 경험, 사목과 학업 안에서 부족함을 절감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AI는 빠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잠시 멈추곤 합니다. 이 망설임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인류의 품격입니다.

회칙은 선언합니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고통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을 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인간다움의 가장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하는 영혼의 기적들이 일어난다.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는 이름 아래 이러한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모험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120항)



NBA 농구 팬들 사이에서 '스퍼스 수녀들(Spurs Nuns)'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살레시안 수녀님들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스퍼스 농구팀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 오며 경기장을 찾고,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감독에게 화를 조금 줄이라고 권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스퍼스가 예상 밖의 선전으로 NBA 파이널에 진출하는 동안 수녀님들은 SNS를 통해 농구를 즐기고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경기장에서는 응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 다. 특히 여러 선수들과 코트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빅토르 웹반야마가가 경기 전 준비를 잠시 멈추고, 네 명의 가톨릭 수녀님들과 손을 맞잡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청했지요.

물론 그의 정확한 내면의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뜻밖의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스포츠는 인간을 초월적인 차원으로 열어 주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스포츠가 요구하는 금욕적 삶(asceticism)에 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절제와 희생, 자기 부정을 경험합니다.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혹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이러한 요구를 다소 줄여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비우고 절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문제는 이러한 금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절제와 희생이 하느님을

향할 때 그것은 인간을 더욱 깊은 진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요.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운동선수 정체성(athletic identity)'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운동선수'라는 역할과 동일시하는가를 의미합니다. 높은 수준의 운동선수 정체성은 더 큰 동기와 성취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부상이나 은퇴를 맞았을 때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약 45%가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스포츠는 때로 인간을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환상을 깨뜨리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강한 상대일 수도 있고, 부상일 수도 있으며, 세월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선수는 같은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은 하느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진리이지만,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공만을 의지하던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힘과 명예, 통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와 희망,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반야마가 수녀님들에게 기도를 청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위해 극도의 절제와 희생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정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러한 삶의 경험은 그를 자신을 넘어서 어떤 실재에 대해 열려 있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비시즌 동안 불교 승려들과 함께 수행한 것 역시 그러한 영적 갈망의 한 표현일 수 있지요. 그래서 NBA 파이널에서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린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수녀들은 단지 금욕적인 삶의 상징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드러내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웹반야마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순간, 그가 수녀님들에게 다가가 전구를 청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증언과 그의 운동선수로서의 여정이 만나, 언젠가는 그의 마음이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께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지 사항

1. 성경 나눔 모임 안내

* 다음 성경 모임 텍스트: 루카 19,1-10

6월 23일(화) -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Zoom 온라인)

6월 28일(주일) - 미사 후 (오프라인)

7월 7일(화) -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Zoom 온라인)

7월 12일(주일) - 미사 후 교육관 (오프라인)

* 온라인 모임 때 사용하는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 P/W: 69g58g

2.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정) 성당 타워 축복식



Youtube 영상: Vatican News -
"Blessing the Tower of Jesus Christ
of the Sagrada Familia Basilica."

안토니오 가우디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성당 건축을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사명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사치와 명예를 멀리했으며, 검소한 생활 속에서 미사와 성사생활, 기도예에 충실했습니다. 가우디가 '위대한 건축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자신의 일과

부르심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영웅적으로 살아낸 신앙인'으로 교회는 인정하며, 그를 '가경자'로 선포 하였습니다.

* 가톨릭교회의 시성 절차 요약

1. 하느님의 종 (Servus Dei)

성덕의 명성이 있는 신자에 대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성 조사를 시작한 단계. 생애와 저술, 신앙생활 등을 조사.

2. 가경자 (Venerable)

교황이 그 사람의 영웅적 덕행(heroic virtue)와 성덕(holiness)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계. 교회는 그를 성덕의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아직 공적인 전례 공경은 허용되지 않음.

3. 복자 (Blessed)

전구 기도에 의한 기적 1건이 교회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복자로 선포됨(순교자는 기적 없이 가능).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공적인 공경이 허용.

4. 성인 (Saint)

시복 이후 추가 기적 1건이 더 인정되면 교황이 시성을 선포. 성인은 보편 교회 전체에서 공적으로 공경.

| 공동체 기도 지향

<6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구진표 올리바 (6.10) * 허준 안토니오 (6.13)

* 강리아 올리아나 팔코네리아 (6.19)

* 권소영 요한나 (6.24) * 양홍석 베드로 (6.29)

* 윤현태 베드로 (6.29)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6월 13일 ~ 6월 19일)

봉헌금	\$ 120			
교무금	\$ 550			
남궁영근	신미란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6월 공동체 실천 |

하느님 안에서 나를 돌보기

-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하나는 영적 선물, 또 하나는 물질 선물입니다.